

MZ 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경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communication of the MZ generation

Kyung-Hwa Lee
Dept. of Social Welfare, Mok Won University

요약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정립하는 것은 이 세대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 파악하여 MZ세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와 플랫폼 즉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을 파악하므로 인해 이들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그들을 이해 할수 있다. MZ세대는 복잡한 철학이나 명확한 삶의 철학 없이도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MZ세대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체계화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즉, 그들의 삶은 이전 세대와 달리 복잡하지 않으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이는 반드시 철학적 체계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으로 MZ세대의 삶을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 각자의 삶은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의미는 MZ세대만의 목적, 가치, 능력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MZ세대, 철학, 삶의 만족도, 가치감, 실존적 철학

Abstract I believe that establishing the purpose of research on the MZ generation's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understanding this generation's unique communication style and analyzing its influence. Research on the MZ generation's communication identifies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and the communication tools and platforms used by the MZ generation, such as social media and messenger apps, and analyzes how they differ from the existing generation. I can underst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MZ generation can live happily in modern society without a complicated philosophy or a clear philosophy of life. This does not mean that life is meaningless or confusing. The MZ generation can be satisfied with simple and concrete solutions to the meaning of life, and can live without the need to completely systematize everything. In other words, their lives are not as complicated as those of previous generations and can have a variety of meanings. In other words,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defined as a philosophical system. Although this paper cannot clearly divide the lives of the MZ generation into one philosophical system, it was nevertheless possible to see that the lives of each member of the MZ generation can have many meanings, and this meaning includes the MZ generation's unique purposes, values, I could see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sense of ability and a sense of self-worth.

Key Words : MZ Generation, Philosophy, Life Satisfaction, Sense of Value, Existential Philosophy

*Corresponding Author : Kyung-Hwa Lee(lkh0214@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0, 2024
Accepted March 21, 2024

Revised March 5, 2024
Published March 30, 2024

1. 서론

MZ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목적을 정립하는 것은 이 세대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며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 파악은 MZ세대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와 플랫폼을 알아가는데에서 부터이다[1].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에서 그들의 의사소통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이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분을 통해 MZ세대의 의사소통 스타일과 선호도를 이해할 수 있다[2]. 또 디지털 환경의 영향 분석이다.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MZ 세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특히, 디지털 환경이 언어 사용, 표현 방식, 그리고 관계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다[3].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태도 이해하는 것으로 MZ 세대의 의사소통을 통해 나타나는 가치관, 태도,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세대 간 의사소통 격차 극복 방안 모색함으로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다. MZ세대와 기타 세대 간의 의사소통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직장, 가정, 교육 환경 등에서의 세대 간 협업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4].

미래 의사소통 트렌드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 MZ 세대의 의사소통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과 기술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및 정책 제안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와 기존세대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적 및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5]. 이러한 연구 목적은 MZ세대의 의사소통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인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계는 물론, 기업,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2. 본론

MZ세대는 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이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와 Z세대(Gen Z)를 아우르는 용어로 [6],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일상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기에 성장한 첫 번째 세대이다. 그들의 성장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문화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한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불리는데[7]. 이 용어는 그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자랐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정보 습득, 학습 방법, 심지어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8].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살펴보면, MZ 세대는 개인주의, 다양성, 포용성에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보면, 사회적 정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다. 또한, 이 세대는 전통적인 직업 경로나 생활 양식에 대한 고정 관념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9].

MZ세대의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직관적이다. 그들은 이미지, 비디오, 이모티콘 등 비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메신저 앱은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또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MZ세대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빠른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11], 동시에 정보 과부하,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세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다[12].

결론적으로, MZ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세대로,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가치관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미래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는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재해석하고, 기술의 진보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길을 개척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MZ 세대는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통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MZ 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14]. MZ 세대는 또한 소비 행태와 직장 내 문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지속 가능성, 윤리적 생산 방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중요시한다. 직장 내에서는 유연한 근무 조건, 워크라이프 밸런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15].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MZ 세대의 가치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과 조직 문화를 재편하고 있다. 교육과 학습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MZ 세대의 영향은 뚜렷하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강의 방식보다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6]. 이에 따라, 교육 기술(EdTech)의 발전과 함께 맞춤형 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 교육, 게임화된 학습 등이 강조되고 있다[17].

MZ 세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행동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18], 이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MZ 세대는 기술과 사회적 변화의 전면에 서 있으며, 그들의 활동과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19].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다양한 기술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를 가진 두 세대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성세대가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MZ세대는 자신들의 의견과

가치를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기성세대는 MZ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 둘째, MZ세대와의 의사소통에는 그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메일보다는 메신저 앱,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자연스럽게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다[21]. 셋째,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MZ세대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익숙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를 선호한다.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하고,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22]. 넷째, 상호 존중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세대 간의 차이를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다양성과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23]. MZ세대의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새로운 시각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협력과 상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24]. 사회와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한다. 기성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세대 간의 소통 또한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도전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공감은 모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라 생각한다[25]. 기성세대가 MZ세대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화를 더욱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공감을 통해 MZ세대가 직면한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26].

MZ세대는 비판보다는 코칭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환영하지만, 부정적인 비판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27].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대면 회의나 긴 형식의 문서를 선호할 수 있으나, MZ세대는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호를 존중하며 융합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은 직접 대화로 전달하되, 일상적인 업데이트나 피드백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28].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팀 빌딩 활동, 공동 프로젝트 등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9]. 이러한 활동은 각 세대의 강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로부터 배우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팀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모든 의사소통의 기반이 될 것이다. 각 세대가 서로의 견해와 방식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세대 간의 격차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다양성과 혁신을 가져오는 자산이 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 간의 협력과 이해가 증진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30].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은 필수적이다. 기성세대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 그리고 MZ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MZ세대에게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작업 스타일, 생활 방식, 가치관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영감을 받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하며,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각 세대가 서로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

3. 결론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도전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상호 이해와 존중,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은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조명된 MZ세대와의 소통 방법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을 넘어선,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의 다리를 놓는 예술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상호작용은 단지 정보의 전달 수단이 아닌, 깊은 인간적 연결과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함이 명확히 드러났다.

우리는 MZ세대의 독특한 소통 스타일, 가치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친숙함을 이해함으로써, 이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직관적이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찾아냈다.

중요한 것은, MZ세대와의 의사소통이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세대는 서로로부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MZ세대와의 소통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요구한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세대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고, 우리가 제시한 방법들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대 간의 소통은 단순히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연결된, 이해심 깊은, 그리고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FERENCES

- [1] Y.G.Park & E. Y. Han. (2014). An Analysis of Disabled right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6, 27-53.
DOI : 10.22779/kadw.2014..26.27
- [2] T.D.Kim & K.B.Kim.(2019). Analysis of Human Rights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Law Research*, 10(1), 97-121.
- [3] W.S.Jang.(2017). A review on the weekly enactmen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Chungcheongbuk-do and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Judicial Administration*, 58(5), 27-43.
- [4] D. H. Kang. (2015).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t the municipal ordinances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with disability, of their human righ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 [5] Daejeon.(2022). *2022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uman Rights Guarantee*. Daejeon: Disabled Person Welfare Division.
- [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2020). *202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Seoul: Planning and Finance Officer.
- [7] M. H. Lee. (2021). The Effectiveness of a Human Rights-Base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Health and Social Research*, 41(4), 334-348.
DOI : 10.15709/hswr.2021.41.4.334
- [8] J. I. Lee. (2021).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the Equality Act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4(2), 87-124.
- [9] U. Choi. (2003). A small study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Law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121-139.
- [10] M.Y.Lee.(2018). A Study upon the Directions in Reform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19(4), 437-452.
- [11] I.S.Lee.(2005).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1(1), 7-36.
UCI : G704-SER000010336.2005..1.002
- [12] I.H.Kwon.(2015). A Study on the Right to Life of the Disabl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Constitutional Judgment Study*, 2(2), 219-244.
DOI : 10.35215/jci.2015.2.2.007
- [13] K.G.Lee.(2000).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under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and the Korean Practi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 35-65.
- [14] G.H.Lee.(2016).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7(1), 39-59.
- [15] Daejeon(2019). *Daej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Daejeon: Autonomous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16] K.S.Lee.(2021). Quality of Care Services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 Study on the Factors of Impact. *Korea Criminal Information Research*, 7(1), 75-94.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026>
- [17] K.W.Um.(2015). Roles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4, 51-73.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199>
- [18] H. S. Kim, J. P. Jung. & M. Y. Choi. (2015). The Effect of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on Intention of Ill-treat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Mediating Effects of facility opennes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7(1), 127-138.
- [19] Y. H. Kim. (2018). *A Study on the Elderly Human Rights Condition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 and the Impact of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of the Caregivers on their Care*

- Service Qual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e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Gyeongsangbukdo.
- [20] E.H.Lee.(2014). A Study on Effects of Self-Efficacy of Social Workers in Relation to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Gazette*, 18(3), 261-286.
DOI : 10.18397/kcgr.2014.18.3.261
- [21] D. K. Kim & E. A. Cho. (2019).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Self-Efficacy affecting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rectors' Leadership Styles.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45, 115-136.
DOI : 10.22779/kadw.2019.45.45.115
- [22] D. B. Son. (2020).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on Service Qualit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sangbukdo.
- [23] J. D. Kwon & E. S. Shon. (2010). The effect of the elderly's self-awarenes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Elderly Welfare Research*. 49. 81-105.
- [24] K. S. Kim. (2007). *A Study of the Effect of Right-based Perspective on the Practice Mode of Social Workers*.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eon.
- [25] H. S. Kim. (2018).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Professionalism on Types of the Social Work Practice of Practitioners in the Senior Welfare Fac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4), 153-163.
DOI : 10.22143/HSS21.9.4.12
- [26] H.S.Kim & M.B.Jo & J.B.Kim.(2014). Relationships of Social Welfare Facility Employees' Human Rights Awareness with their Ill-Treatment Ac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6(2), 1-19.
- [27] J. H. Cho. (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senior welfare facility staffs suffering from emotional labor.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1(1), 129.143.
DOI : <https://doi.org/10.22788/1.1.9>
- [28] S. J. Kang. (2018). A Study Qualitative Research o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Dignified Care Experience for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Practice*, 9(1), 104-131.
- [29] Y. H. Park & J. D. Rah. (2011). An Influences which Environmental Factors of Care Providers has on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3(2), 13-22.
- [30] S. Y. Baek. (2019).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Self-efficacy and Change Jobs Nursing Care Institu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4), 1325-1340.
DOI : 10.22143/HSS21.10.4.95

이 경 화(Kyung-Hwa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2022년 12월 : 목원대학교 일반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1993년 8월 ~ 현재 :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장

- 관심분야 : 사례관리, 가족복지, 여성복지
- E-Mail : lkh0214@hanmail.net